

지 상 법 석

꽃이 피고 향기도 납니다

깨달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모습을 찾는 자기속에서 피어납니다

의 이치는 순리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 다저도 마음 밖으로 놓으면 오히려 그 목표가 제 스스로 찾아 오는 이것이 묘법입니다.

부러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여러분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다 생각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오.

했습니다. 난감해진 선인은 여래에게 공양을 하려하니 제발 꽃을 팔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자, 그 정성에 감동해서 자기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꽃 5송이를 주고, 2송이는 자기 뉘으로 여래에게 공양을 올려달라면서 그 7경화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름 · 권세 탐하면 苦海에서 못벗어나 '생활을 불교화 하는 것' 자기를 찾는 수행

수행선이란 따라가면 또 그 만큼 멀어져서 언제나 '자기'에 있을 뿐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 있죠. 다른 이들이 아전인수(我田用汝)라 손가락질 할 지 모르겠지만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선으로 주면 선으로 받고 악으로 주면 악으로 받고 이것이 불교의 인과 이치입니다”

세상을 살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 노력하는게 바른 인생입니다. 그래야 과거 · 현재 · 미래를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29 양행진 개념의 한계
지난 번에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양자역학에서의 물체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사실을 무수히 많은 방향에서 도봉을 그려서 이러한 물체가 입자

집착 버릴때 상대적 관념 초월하게돼 양자역학 '場' 개념 도입 언어한계 극복
부족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나 광자에 대한 설명이 또한 이와 같다. 전자라는 존재도 파동과 입자라는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파동이나 입자라는 개념은 서술이나 의정부에서 보는 방향과 같이 우리가 비교적 친숙히 아는 상대적인 개념의 쌍인 뿐이다.

2천만에 이름 깨달음 현대 불교 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주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대구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경기지사 전화 053-427-8008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초기 열반경 강설법회
우리는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불사의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는가?
이 도도한 세기말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진정한 순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